

3세대 모녀간의 애착·자율성 발달특성과 심리적적응*

Three generations of mothers and daughters : attachment patter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한국 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조 병 은

한국 가족상담·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 유 은 희

건국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이 정 순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최 혜 경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 : Byung-Eun Cho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Chief Researcher : Eun-Hee Yoo

Konkuk univ.

Lecturer. : Jung-Soon Lee

Ewha Womans Univ.

Assistant Prof. : Hye-Kyoung Choi

〈 목 차 〉

I. 문제제기 및 이론적 고찰

II. 연구방법

III. 조사결과 및 분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research applied an attachment theory to the study of three generations of women. Questionnaire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techniques were employed

* 본 논문은 1994년 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o collect the data on intergenerational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from 140 triads of adolescent daughters, middle-aged mothers, and old-aged grandmothers. The focus of the study had been on the characteristics of attachment patterns which is measured by sense of attachment and autonomy across and within generations, and their effects on personal well-being.

Women in each of the three generations perceived a high and semilar level of attachment across and within the generations.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autonomy differed by the generations, with middle-aged mothers showing a higher level of perceived sense of autonomy than other two generations. Although the levels of attachment and autonomy were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the level of autonomy was slightly more related to it. The result also showed that not only one's own attachment toward mother/daughter but attachment of others toward herself were associated with the personal well-being. Overall, this study reflects and supports the basic concepts of mother-daughter attachment: its continuity, reciprocity and personal development in adulthood.

1. 문제제기 및 이론적 고찰

부모자녀관계는 일생동안에 걸쳐 일어나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가족학이나 아동학 분야에서 주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로 1970년대 중반부터 Bowlby와 Ainsworth의 '애착' 개념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의 애착연구는 애착이 의존적인 상태에서 생존기재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개념에서 주로 영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영유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그리고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애착이 노인의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Ainsworth, et al., 1978; Cicirelli, 1993). 그러나 Bowlby (1980)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안전감을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애착행동은 영아의 발달적 요구, 영아와 부모간의 상호작용의 역사,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지각, 사회문화적 특성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애착개념은 안전감을 획득함으로써 자율성의 발달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애착의 개념에는 자율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것은 의존성과는 다르다 (Bretherton, 1985). 따라서 기존의 애착연구들은 애착행동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간과하였으며, 애착에 자율성의 개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애착의 기능은 전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박성연 외, 1995). 유아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관계의 내적표상은 극적인 변화가 없이 지속되어 후일 성인기의 중요한 타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안내 역할을 함으로써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Cicirelli, 1993). 선행연구들은 전생애에 걸쳐 애착이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머니와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한 영·유아는 또래관계가 더 활발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도 더 성취지향적인 경향을 보인다 (고경애, 1983; Ainsworth et al., 1978; Cassidy, 1986; Denham et al., 1991; Main et al., 1985; Sroufe, 1979). 애착은 또한 청소년들의 학업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의 적응 (유은희, 1993; 이은경, 1992; Armsden & Greenberg, 1987)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아동기의 애착경험은 성인기의 직장생활 및 부부관계를 포함한 남녀간의 애정관계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강진경, 최혜경, 1996; 유은희, 박성연, 1989), 자녀 양육의 질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Rutter, Quinton, & Liddle, 1983). 또한 성인자녀와의 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신효식, 서병숙, 1995; 조병은, 1988; 최혜경, 1985) 불안이 적었다. (Burnett, 1987).

이러한 연구들은 애착의 기능이 전생애에 걸쳐 작용한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으나, 개인이 인생주기를 지나면서 변화, 성장해가는 애착관계의 발달형태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발달심리학자들은 부모의 역할을 발달적 역할이라고 본다.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적 변화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동시에 부모 자신이 발달하면서 겪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적 경험은 부모와 자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존 애착연구들은 발달적 변화에 따른 애착의 변화와 애착이 부모자녀 쌍방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해왔다.

부모 자녀간의 애착의 발달적 특성을 살펴보면, 영유아기에는 부모와 신체적으로 접촉하며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특성을 나타내지만 아동기와 청년기로 성장하면서 신체적인 접촉보다는 정서적 유대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자율성으로 분화되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Cicirelli, 1983; Pillemer & McCartney, 1991). 특히 청소년기부터의 자율성 발달은 자아정체감의 중요 요소로서 (Campbell, et al., 1984; Hill & Holmbeck, 1986; Lewis, 1986), 이성관계나 (강진경, 최혜경, 1996; Hoffman, 1984), 대학입시의 적응에도 (유은희, 1993)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인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유은희의 연구 (1991)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높게 발달된 자녀들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대가족에서 기능적인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함을 시사해주었다. 또한 최근의 우리나라 노인들의 의식에 관한 연구들에서 (이가옥, 1990; 최성재, 1992; 한국 껌연구소, 1988; 한국 노인문제 연구소, 1993) 현대 노인들은 경제적, 신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자녀와 분가하여 살기를 원하나 자녀와는 긴밀한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노인부모들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율성과 애착이 균

형있게 유지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이후의 부모자녀 관계는 비교적 독립된 성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애착과 자율이 균형적으로 발달된 유형이 건강하고, 기능적이고, 또한 균형된 유형이 부모, 자녀 쌍방의 심리적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청소년,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애착연구들은 애착에 대한 정의를 친밀감 차원에서 규정하고 자율성개념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3세대 모녀를 대상으로 하여 모녀간의 애착·자율성의 발달적 특성과 쌍방간 상호작용적 특성을 규명하고, 모녀간의 애착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가족의 특성이 여성을 중심으로 정서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모녀 관계를 택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3세대 모녀관계에서 애착과 자율성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둘째, 모녀간의 애착, 자율성 발달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는 3세대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기 딸과 중년기 어머니 그리고 노년기 할머니로 구성된 3세대 140쌍 420명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 소재하는 22개 여자 중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학생과 어머니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본인이 응답케 하였으며, 노년기 할머니는 면접훈련을 받은 대학원생들을 통해 직접 면접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1994년 8월부터 10월말까지였다.

본 연구 대상자 중 청소년기 딸의 평균연령은 14.7세로서 중학생 61.3%, 고등학생 38.7%이다. 중년기 어머니의 연령은 34세에서 52세의 분포를 보이며 평

균연령은 41.8세이다. 학력은 고졸이 50%로 가장 많고 대졸이 30.7%, 중졸이 9.3%이다. 노년기 할머니의 연령분포는 58세에서 88세까지이며 평균연령은 68.6세이다. 학력은 국졸 (36.2%)이 가장 많고, 무학 (23.9%)과 고졸 (13%)의 순서로 나타난다.

2. 측정도구 및 방법

모녀관계 모녀관계는 애착과 자율성으로 측정하였으며, 3세대간의 모녀관계를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 딸의 중년기 어머니에 대한 대모 애착-자율성, 중년기 어머니의 청소년기 딸에 대한 대자녀 애착-자율성과 노년기 할머니에 대한 대모 애착-자율성, 그리고 노년기 할머니의 중년기 어머니에 대한 대자녀 애착-자율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애착과 자율성은 유은희 (1991)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애착척도는 상대에 대한 친밀감을 묻는 12문항으로, 자율성척도는 상대로부터의 자율성을 묻는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 (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게 되어있다. 애착척도의 신뢰도 (Chronbach α)는 청소년기 딸의 대모애착은 .91, 중년기 어머니의 대자녀애착과 대모애착은 각각 .78와 .89, 노년기 할머니의 대자녀애착은 .88이다. 자율성 척도의 신뢰도는 청년기 딸의 대모 자율성은 .72, 중년기 어머니의 대자녀 자율성과 대모 자율성은 각각 .77과 .70, 노년기 할머니의 대자녀 자율성은 .75이다.

애착-자율성 발달유형은 애착과 자율성 각각의 평균점수 (청년기 딸의 대모애착 44.0, 자율성 32.63; 중년기 어머니의 대자녀 애착 46.1, 자율성 37.0, 대모애착 44.4, 자율성 36.8; 노년기 할머니의 대자녀 애착 46.1, 자율성 33.8)를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4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즉,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기준보다 높은 집단, 애착은 기준보다 높고 자율성은 낮은 집단, 애착은 기준보다 낮고 자율성은 높은 집단,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심리적 적응 청소년기 딸, 중년기 어머니, 노년기

할머니의 심리적 적응의 지표로서 긍정적 차원으로 자존감을, 부정적 차원으로 우울감을 측정하였다. 자존감은 Rosenberg (1979)의 Self-Esteem Scale을, 우울감은 Beck (1976)의 Depression Scale (박성연 외, 1995)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Scale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게 되어있다. 자존감 척도의 신뢰도는 청년기 딸은 .85, 중년기 어머니는 .79, 노년기 할머니는 .70이고, 우울감 척도의 신뢰도는 청년기 딸은 .90, 중년기 어머니는 .84, 노년기 할머니는 .84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들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들을 사용하였다. 3세대 관계에서 애착과 자율성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는 paired t-test, 평균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녀간의 애착, 자율성 발달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가 3세대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GLM (General Linear Model) method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애착-자율성 발달유형별로 심리적 적응척도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III. 조사결과 및 분석

연구문제 1. 3세대 모녀관계에서 애착과 자율성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1-1) 3세대 모녀관계에서 애착과 자율성은 세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모녀간의 애착정도를 세대별로 비교해본 결과 대모애착과 대자녀애착은 3세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paired-t test 결과, 청소년기 딸의 중년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중년기 어머니의 노년기 할머니에 대한 애착은 그 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또한 중년기 어머니의 청소년기 딸에 대한 애착과 노년기 할머니의 중년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을 문항별로 평균점수를 비교했을 때에도 3세대

모두 비슷한 특성을 보여, 어머니에 대해서나 딸에 대해서 상호 신뢰하며,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서로 무시하지 않은 측면이 모두 높은 점수 (5점 만점에 3.5 이상)를 보였다.

모녀간의 자율성정도를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어머니에 대한 자율성 ($t = -6.46, p = .001$)과 딸에 대한 자율성 ($t = 3.75, p = .001$) 모두 3세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서, 발달단계에 따라 자율성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중년기 어머니의 노년기 할머니에 대한 자율성이 청소년기 딸의 중년기 어머니에 대한 자율성 보다 높고, 중년기 어머니의 청소년기 딸에 대한 자율성이 노년기 할머니의 중년기 어머니에 대한 자율성 보다 높아, 중년기 세대의 자율성이 다른 어느 세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딸이나 어머니라는 세대적인 위치 보다는 중년기라는 발달단계적인 특성이 자율성에 보다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율성을 문항별로 비교했을 때에는,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2) 3세대 모녀관계에서 애착과 자율성의 세대간 상호성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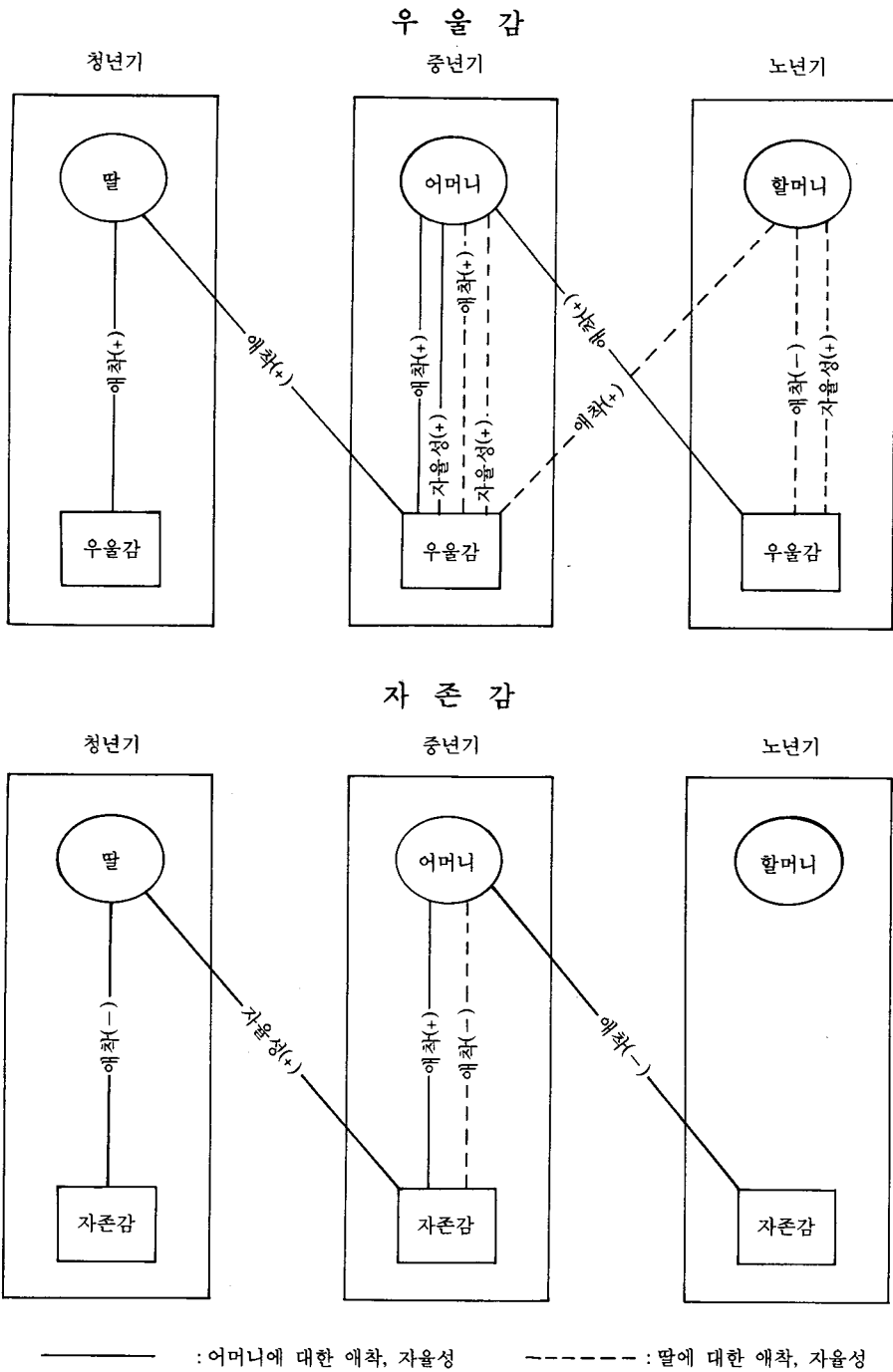
모녀간 애착을 상호 비교했을때, 애착문항 특성에서는 3세대 모두 모녀 상호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애착정도에서는 어머니의 딸에 대한 애착이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보다 더 큰 것이 3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Paired-t test 결과를 보면, 청소년기 딸의 대모애착 보다는 중년기 어머니의 대자녀애착이 더 크고 ($t = -2.73, p = .01$), 중년기 어머니의 대모애착 보다는 노년기 할머니의 대자녀애착이 더 크다 ($t = -2.35, p = .05$). 따라서, 세대에 상관없이 부모에 대한 애착 보다 자식에 대한 애착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녀간의 자율성정도를 상호 비교해 보면, 청소년기 딸과 중년기 어머니 ($t = -5.46, p = .01$), 중년기 어머니와 노년기 할머니 ($t = -2.35, p = .05$)의 서로에 대한 자율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문항별로 비교해보면, 서로 옳지 않다고 생각될 때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3세대 모두에게 공통적이거나 평상시의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년기 어머니와 노년기 할머니의 관계에서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 딸은 어머니의 일 보다 자신의 일에 더 열중하지만 중년기 어머니는 자신의 일 보다 딸의 일에 더 열중하는 것으로

<표 1> 청소년기 딸·중년기 어머니 간의 애착·자율성에 따른 청소년기 딸의 심리적 적응

종속 변수	모녀관계	독립변수	F	애착-자율성 유형		빈도	평균
				애착	자율성		
우울감	대모 애착-자율성	애착	11.75**	높음	높음	23	50.39
		자율성	0.18	높음	낮음	45	49.35
		상호작용	0.01	낮음	높음	43	61.97
	중년기 어머니의 대자녀 애착-자율성	애착	1.36	높음	높음	34	53.14
		자율성	2.12	높음	낮음	36	55.05
		상호작용	0.77	낮음	높음	42	54.09
자존감	대모 애착-자율성	애착	20.62**	높음	높음	23	33.17
		자율성	0.02	높음	낮음	45	34.68
		상호작용	2.36	낮음	높음	43	29.88
	중년기 어머니의 대자녀 애착-자율성	애착	1.68	높음	높음	29	28.03
		자율성	1.29	높음	낮음	34	33.52
		상호작용	0.92	낮음	높음	36	31.13
				낮음	높음	42	30.95
				낮음	낮음	28	30.75

**p < .01



〈그림 1〉 3세대 모녀간의 애착, 자율성 발달특성과 심리적 적응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녀관계의 특성이 발달 단계별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문제 2. 모녀간의 애착, 자율성 발달과 자존감, 우울감과 관계는 3세대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 모녀간의 애착, 자율성 발달에 따라 청소년기 딸의 우울감 및 자존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청소년기 딸의 대모 애착은 딸 자신의 우울감과 자존감 모두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다 <표 1, 그림

1). 즉, 청소년기 딸 중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우울감이 낮고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율성, 그리고 애착과 자율성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다. 단지 딸의 애착-자율성 발달유형을 분류하였을 때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우울감이나 자존감 등 심리적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기 딸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자율성 경험은 청소년기 딸의 우울감과 자존감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다.

〈표 2〉 청소년기 딸-중년기 어머니 - 노년기 할머니 간의 애착·자율성에 따른 중년기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

종속 변수	모녀관계		독립변수	F	애착-자율성 유형		빈도	평균
					애착	자율성		
우울감	청소년기 딸과의 관계	대자녀 애착-자율성	애착	7.00**	높음	높음	34	41.67
			자율성	2.91	높음	낮음	36	47.47
			상호작용	0.53	낮음	높음	42	49.71
		청소년기 딸의 대모 애착-자율성	애착	0.15	높음	높음	28	52.03
			자율성	3.80**	낮음	낮음	23	48.95
			상호작용	0.24	높음	낮음	45	45.31
	노년기 할머니와의 관계	대모 애착-자율성	애착	4.12**	낮음	높음	43	51.13
			자율성	0.30	낮음	낮음	29	45.06
			상호작용	0.02	높음	높음	28	44.25
		노년기 할머니의 대자녀 애착-자율성	애착	3.12**	높음	낮음	42	45.97
			자율성	0.91	낮음	높음	46	49.67
			상호작용	1.84	낮음	낮음	24	50.66
자존감	청소년기 딸과의 관계	대자녀 애착-자율성	애착	9.02**	높음	높음	26	44.57
			자율성	10.55**	높음	낮음	48	45.58
			상호작용	0.09	낮음	높음	43	52.37
		청소년기 딸의 대모 애착-자율성	애착	3.61**	낮음	낮음	23	46.60
			자율성	1.86	높음	높음	48	45.58
			상호작용	0.00	높음	낮음	43	52.37
	노년기 할머니와의 관계	대모 애착-자율성	애착	18.10**	낮음	높음	23	41.85
			자율성	5.33**	높음	낮음	45	45.31
			상호작용	0.93	낮음	높음	43	51.13
		노년기 할머니의 대자녀 애착-자율성	애착	7.67**	낮음	낮음	29	45.06
			자율성	0.00	높음	높음	28	38.14
			상호작용	0.20	높음	낮음	42	35.28

2-2) 모녀간의 애착, 자율성 발달에 따라 중년기 어머니의 우울 감 및 자존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중년기 어머니와 노년기 할머니의 관계변인들 중에서 중년기 어머니의 우울감에는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할머니의 대자녀 애착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어머니의 자존감에는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자율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할머니의 대자녀 애착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2, 그림 1>.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자율성의 발달유형을 분류하였을 때, 자율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애착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자존감 점수가 높았으며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특히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머니의 대자녀 애착과 자율성의 발달유형을 분류하였을 때도 역시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높은 집단에서 중년기 어머니의 우울감이 특히 낮았다.

중년기 어머니와 청소년기 딸의 관계변인들 중에서 어머니의 우울감에는 어머니의 대자녀 애착과 청소년기 딸의 대모 자율성이 유의한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존감에는 어머니의 대

자녀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그리고 청소년기 딸의 대모 애착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흥미로운 결과는 어머니의 딸에 대한 자율성은 어머니의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청소년기 딸의 어머니에 대한 자율성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어 청소년기 딸의 어머니에 대한 자율성이 높을 때 어머니의 우울감이 높았다. 어머니의 대자녀 애착과 자율성의 발달유형을 분류해보면,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낮은 집단에서 우울감은 가장 높았고 자존감은 가장 낮았다.

2-3) 모녀간의 애착, 자율성 발달에 따라 노년기 할머니의 우울 감 및 자존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노년기 할머니의 대자녀 애착과 자율성은 우울감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자존감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표 3, 그림 1>. 즉, 중년기 딸에 대한 애착 또는 자율성이 높은 할머니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높았다.

한편, 할머니에 대한 중년기 딸의 애착은 우울감과 자존감에 유의적인 차이를 가져왔으나, 자율성 그

<표 3> 중년기 어머니-노년기 할머니 간의 애착, 자율성에 따른 노년기 할머니의 심리적 적응

종속변수	모녀관계	독립변수	F	애착-자율성 유형		빈도	평균
				애착	자율성		
우울감	중년기 어머니의 대모 애착-자율성	애착	6.23**	높음	높음	26	48.30
		자율성	0.22	높음	낮음	42	50.38
		상호작용	0.08	낮음	높음	44	56.00
	대자녀 애착-자율성	애착	1.71	높음	높음	26	47.46
		자율성	2.81	높음	낮음	48	54.27
		상호작용	0.47	낮음	높음	43	53.20
자존감	중년기 어머니의 대모 애착-자율성	애착	14.21**	높음	높음	26	34.07
		자율성	0.24	높음	낮음	42	34.85
		상호작용	1.67	낮음	높음	44	31.68
	대자녀 애착-자율성	애착	33.53**	높음	높음	26	36.84
		자율성	13.01**	높음	낮음	48	33.62
		상호작용	0.03	낮음	높음	43	31.58
				낮음	19	28.05	

** p < .01

리고 애착과 자율성간의 상호작용은 우울감과 자존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평생발달적 견지에서 애착이론을 근거로 3세대 모녀간의 애착·자율성 발달에서 세대간의 발달적 특성과 상호성, 그리고 그러한 발달유형이 모녀의 심리적 적응에 끼치는 영향을 보았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애착의 발달정도 또는 특성면에서 3세대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애착은 모녀간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딸에 대한 애착으로 그 상호성을 비교하였을때, 어머니의 딸에 대한 애착이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보다 더 높은 것이 3세대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리사랑이라는 일반적인 속설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애착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3세대 모두에게서 발견되었다. 즉, 개인의 어머니 또는 딸에 대한 애착은 그 개인의 우울감과 자존감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이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심리적 안전기제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애착의 기능이 전생애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자율성에서는 발달정도에서 세대별로 차이가 있어서 중년기 어머니의 자율성이 청소년기 딸과 노년기 할머니의 자율성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특성면에서는 중년기 어머니는 자신 보다 딸의 일에 더 열중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기 딸은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자율성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애착과 같이 전반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세대별로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청년기 딸의 심리적 적응에 딸의 대모 자율성과 어머니의 대자녀 자율성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청년기가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함께 자율성 발달이 청년의 적응에 중요

변인이라는 외국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진정한 독립은 취업 또는 결혼 이후로 지연되고 있으며 청년기는 대학입시 준비 위주의 생활로 편중되어 있어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을 강화시키는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중년기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에는 어머니 자신의 대모 그리고 대자녀 자율성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할머니의 어머니에 대한 자율성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은 반면에 청소년기 딸의 자신에 대한 자율성은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중년기 어머니들은 노모의 자율성은 성인 대 성인의 관계인 중년기 딸과 노모의 관계에서 있는 당연한 현상으로 지각하고 있는데 비해 딸의 자신에 대한 자율성은 자신에 대한 반항 내지는 거부로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의 특성 즉,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모역할도 하고 노부모에게 자녀역할도 해야하는 샌드위치 세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할머니의 심리적 적응에 할머니의 딸에 대한 자율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년기 딸의 할머니에 대한 자율성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노년기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시기로서 노모의 딸에 대한 자율성이 높음은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인의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애착·자율성 발달유형에 따라 심리적 적응을 비교해 본다면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높은 집단의 심리적 적응 수준이 가장 높았고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낮은 집단의 심리적 적응 수준이 가장 낮았다. 또 중년기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애착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자율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보다 미치는 정도가 더 컸으며, 자율성은 애착의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 이냐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애착은 전생애에 걸쳐 고

르게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자율성은 세대별로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각 단계의 발달적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의 애착 보다 자율성의 정도와 특성이 인간발달의 지표로서 더 적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째, 모녀관계에서 상대방의 애착경험도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의 상호성을 보여주었다. 상대방의 애착경험이 개인의 자존감에 미치는 관계를 세대별로 보면 청소년기 딸에게는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애착경험은 의미가 없다. 반면 중년기 어머니와 노년기 할머니에게서는 자신의 애착 뿐만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대해 갖고있는 애착도 자신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대조는 청년기의 발달적 특성인 자아중심성으로 인해 자신의 애착경험에는 관심을 두지만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생각에는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년기 어머니와 노년기 할머니는 화목한 가족관계를 이룩하는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결과적으로 상호간의 안정된 애착발달이 개인의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관계는 두사람의 상호작용 역사의 산물로서 상대방의 애착경험은 개인 자신의 애착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다시 개인의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애착이론이 제시한 부모자녀간의 애착은 개인의 상호작용의 역사,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지각, 사회문화적 특성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화하고 지속한다는 이론들을 반영하여, 3세대 모녀간의 애착·자율성 발달특성과 쌍방간 상호작용적 특성을 규명하고 모녀간의 애착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모녀관계의 발달적 특성을 잘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반영함으로써, 애착의 지속성, 상호성과 건강한 모녀관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류가정의 모녀관계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서의 모녀관계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또한 아들-아버지-할아버지로 이어지는 부자관계도 여성의 애착특성과 같은 양성을 보이는가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진경·최혜경(1996),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과 성인기 사랑에서의 성차, 대한가정학회지, 34(4), 161-174.
- 2) 고경애(1995),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박성연(1988), 모의 결혼관계와 모-기혼자간 애착에 관한 연구, 농촌54(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11-233.
- 4) 박성연·유은희(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관계에 따른 아들 부부결혼만족도 :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2), 149-162.
- 5) 박성연 외(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 : 전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86-93.
- 6) 유계숙(1995), 성인 딸과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78-88.
- 7) 유은희(1991a),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 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유은희(1991b), 성인자녀-부모의 정서적 유대와 가족생활 변화의 적응-전생애적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9(4), 111-1.
- 9) 유은희(1993), 부모 자녀 관계와 수험생자녀의 학업성취, 현대사회와 가족문제-한국가족의 자녀교육열과 가족의 대처방안, 학술진흥지원연구.
- 10) 이가옥 외(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1) 이은경(1993), 청소년기 모-자녀간의 애착이 자

- 녀의 사회성과 학문 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2) 신효식 · 서병숙(1991),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이 노부모의 심리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2(2), 99-108.
 - 13) 최정혜(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 아산사회복지재단.
 - 16) Ainsworth, M.D., Blehar, M.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J.N : Lawrence-Erlbaum.
 - 17) Armsden, G. C. & M. T. Greeberg(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18) Bretherton, I. Biringen, Z. & Ridgeway, D.(1991), The Parental side of attachment, In K. Pillemer & K. McCartney (Eds.),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 NJ : Lawrence-Erlbaum, 1-24.
 - 19) Cassidy, J.(1986), The ability to negotiate the environment : An aspect of infant competence as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7, 31-337.
 - 20) Cicirelli, V(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21) Cohn, D.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s 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22) Denham, S.A., Remwick, S.M. & Holt, R.W. (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emotional competence from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 242-249.
 - 23) Hoffman, E(1979), Young adults' relations with their Grandparents : an explorator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0, 299-310.
 - 24) Klagsbrun, M., & Bowlby, J.(1976), Responses to separation from parents : A Clinical test for young children, *British Journal of Projective Psychology* 2121.
 - 25) Lamton, L., Siverstain, M. & Bengtson, V.(1994), Affection, social contact, and geographic dist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57-68.
 - 26) Lewis, M.(1987), Social Development in infant and early childhood, in J.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 John Wiley.
 - 27)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 28) Pillemer, K. & McCartney, K.(1991), Parent-child relations throughout life, Hillsdale Lawrence-Erlbaum.
 - 29)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30) Sroufe, L.A.(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s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 31) Thompson, S & Walker, A.J.(1984), Mother and daughter aid patterns and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 32) Walker A. & Thompson, L.(1983), Intimacy and intergenerational aid contact : Aging mother and daught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41-847.